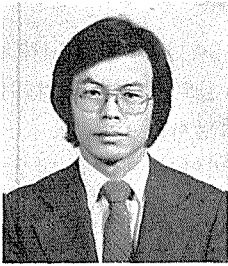


# 世界石油市場環境의 變化와 OPEC의 石油政策



李 英 九

(韓國動力資源研究所 · 先任研究員)

## I. 序 言

80年 이후 계속되어 온 石油에 대한 世界的인 需要減退와 이로 인한 過剩生産能力의 出現때문에 需給構造의 調整方向과 速度가 크게 變해 왔다. 79/80年에는 國際石油情勢에 있어서의 主要關心事는 消費國들의 石油安定供給과 油價의 急激한 上昇에 관한 것으로서 主로 消費國側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石油情勢는 正反對의 現象을 보이고 있다. 現在 問題가 되고 있는 것은 供給의 安定確保가 아니라 供給過剩이며, 油價의 계속적 上昇이 아니라 OPEC基準油價의 固守이다. 供給이 豊富한 現市場 條件下에서는 長期契約에 의한 去來는 有利한 供給確保의 機能을 喪失해 가고 있으며, 利益보다는 損失을 惹起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政府間去來(G-G 去來)도 輸入國들로 부터 그 魅力를 잃어가고 있다.

과거부터 進行되어 왔고, 最近에 本格化되기 시작한 産油國들의 下流部門에의 進出과 産油利權에 대한 自國資本의 參與擴大, 石油會社의 國營化 등 石油産業에 대한 強力한 參與로 石油市場에서의 메이저(majors)의 地位가 弱화되고 있으며, 去來形態도 多數·小量化되고 있다.

이것은 OPEC카르텔의 地位를 向上시켜 주는 效果가 있는 反面, 去來의 多岐化와 契約期間의 短期化로 需要減退時에는 限界原油인 OPEC原油에 대

한 需要의 大幅의 減少를 招來할 수 있는 效果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世界石油市場은 構造的으로 變化하고 있으며, OPEC에서도 이에 대한 解決方法 摸索에 腐心하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世界石油市場이 어떻게 變化해 가고 있으며, OPEC의 앞으로의 進路와 政策方向은 어떻게 調整될 것인가를 알아 보고자 한다.

## II. 石油市場의 變化

### 1. 産油國과 메이저의 關係

메이저의 世界石油市場에서의 地位는 70年代初 이후 크게 弱화되고 있다. 이러한 메이저의 地位弱화는 産油國, 특히 OPEC의 地位向上과 去來先의 細分化를 招來하게 되었다. <表-1>에서 보면, 73年 메이저의 原油取扱量은 世界石油貿易量의 약 90%에 달하는 30百萬B/D였으나, 81년에는 약 64%인 18.3百萬B/D로 減少했으며, 앞으로 더욱 減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73年 메이저의 精製用原油必要量은 23百萬B/D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原油는 小規模 石油會社나 消費國 등 第3者에게 長期契約에 의해 販賣해 옴으로써 世界石油産業에 대해 強力한 支配力을 行使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産油國들에 의해 취해진 일련의 國有化措置로

메이저의 産油利權은 産油国政府나 産油国国营石油会社로 넘어가게 되므로써, 메이저의 持分(equity) 原油 引受量은 自己社의 精製用必要量도 充足시킬 수 없을 정도로 크게 減少하였다.

메이저의 이러한 地位弱화는 79년의 이란革命과 이에 따른 原油供給의 中斷으로 더욱 加速化되어 현재는 거의 單純購買者의 位置로 轉落하게 되었고, 第3者에 대한 長期原油供給도 履行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메이저의 顧客, 즉 第3者들은 새로운 原油供給先을 물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第3者와 産油国과의 直接去來가 增加하게 되었다. 多数·少量需要處인 第3者와 産油国과의 直去來는 世界石油市場에서의 競争을 增加시키게 되었고, 産油国의 地位를 한층 強化시켰다.

〈表-1〉 7大 메이저의 石油供給 및 處分現況 (單位: 百萬b/d)

	1973	1978	1980	1981
原油確保	30.0	23.3	19.6	18.3
地域別 { OECD以外	25.0	17.1	13.3	11.4
{ OECD	5.0	6.2	6.3	6.9
確保方法 { 持分原油	25.5	13.4	9.7	8.9
{ 아랍코特惠	-	3.6	7.5	6.6
{ 이란콘소시엄	-	4.1	-	-
小計	25.5	21.1	17.2	15.5
其他購入	4.5	2.2	2.4	2.7
原油處分	30.0	23.3	19.6	18.3
第3者販賣	6.7	3.7	0.8	1.0
自己精製用	23.3	19.5	17.9	15.9
其他	-	0.1	0.9	1.4
世界貿易量	34.0	34.1	31.9	28.7

資料: Petroleum Economist, July 1982.  
BP Statical Review of World Energy, 1981.

## 2. OPEC과 非OPEC의 關係

石油需要가 크게 減退되어 있고, 在庫의 放出이 계속되므로써 限界原油인 OPEC原油에 대한 需要는 크게 減少되어 왔다. 73년에는 自由世界 總原油供給量의 63%에 달했던 OPEC의 供給比重이 81년에는 51%로 減少했으며, 今年 上半期中에는 더욱 減少하여 45%에 불과하였다. (〈表-2〉참조) 금년의 경우는 OPEC原油의 相對的 高水準維持努

〈表-2〉 OPEC의 原油供給比重推移

(單位: 百萬b/d)

	1973	1980	1981	1982上半期
OPEC	31.28	27.40	23.18	17.90
非OPEC	17.06	20.58	21.17	20.61
共產国	1.37	2.01	2.20	n. a
自由世界計	49.71	49.99	46.55	37.61

資料: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1981  
Petroleum Economist, September 1982

力에 따른 一時的 現象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79年以後의 推移를 分析해 볼 때 先進工業國의 石油消費패턴에 있어서도 變化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長期的으로도 OPEC카르텔이 存在하여 價格決定에서 會員間의 異見이 있을 때 非OPEC에 비해 需要와 價格의 彈力的 運營에 伸縮性이 적게 될 것이다, 따라서 消費國들에게는 非OPEC 原油에 대한 選好度가 높아지게 된다.

〈表-3〉 自由陣營의 OPEC石油 需要量 展望

(單位: 百萬b/d)

區分	1980	1983	1984	1985	1990
自由陣營의 에너지需給量					
消費量	95.2	100.5	103.3	106.5	120.2
非石油에너지供給量	47.6	52.9	55.2	57.5	71.0
石油需要量	47.6	47.6	48.1	49.0	49.2
非OPEC産油量					
美 國	9.7	9.6	9.6	9.7	9.7
北 海	2.2	2.6	2.6	2.6	2.6
멕시코	2.1	3.1	3.1	3.1	3.1
其他	6.1	6.7	6.9	7.2	8.3
小計	20.1	22.0	22.2	22.6	24.0
共產陣營 輸出量	1.3	0.9	0.8	0.7	0.5
非 OPEC供給量	21.4	22.9	23.0	23.3	24.5
OPEC原油需要量	+27.1	24.7	25.1	25.7	24.7

+ 原油換算 液体天然가스(NGL) 包含

資料: Bankers Trust Co.

自由世界의 原油需給展望에 따르면, 〈表-3〉에 提示된 바와 같이, 85年의 경우 OPEC의 供給比重은 52%로 되며 90년에는 50%로 낮아지는 것으로 展望되어있다. 이것은 81年初 Banker's Trust Co에서 展望한 것으로써 非OPEC의 供給能力을 다소 과소평가한 듯하다.

최근 MEES紙에서 作成한 自由世界의 石油需給 展望에 따르면, 85年 OPEC의 供給比重은 49.4~51.4%이고, 90년에는 46.5~47.6%이 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表-4)참조).

〈表-4〉 自由世界 石油需要展望

(單位: 百萬b/d)

	1981	1985	1990
消費	47.6	48.0~50.0	49.0~50.0
在庫 및 損失	-1.3	+0.2	+0.2
總所要量	46.3	48.2~50.2	49.2~50.2
非 OPEC 供給	22.8	24.4	26.3
OPEC 必要量	23.5	23.8~25.8	22.9~23.9

資料: Middle Economic Survey, 20 September 1982.

OPEC의 供給量은 絶對量에 있어서도 81 年の 23.5百萬B/D에서 85년에는 23.8~25.8百萬B/D로 약간 增加하나, 90년에는 22.9~23.9百萬B/D로 減少하게 된다. 이것은 消費國들의 에너지消費節約과 石油代替에너지開發에 대한 努力으로 石油에 대한 需要가 減退되고, 이것이 限界原油인 OPEC 原油

에 대한 必要性 低下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OPEC은 油價의 持續的 引上을 위해 產油量을 生産能力 以下로 維持할 것이라는 假定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나 OPEC의 石油埋藏量이 自由世界 總埋藏量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OPEC의 生産量比重은 90年 以後부터는 다시 增加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石油市場은 OPEC의 優位的 支配에서 非OPEC과의 競争의 支配形態로 점차 變해갈 것이다. 그러나 非OPEC의 埋藏量이 크게 減少하게 될 90年以後에는 OPEC의 供給比重이 다시 높아지게 될 것이다.

### 3. 開途國의 原油輸入

앞으로 先進國의 石油消費減少는 開途國의 消費 增加에 의해 相殺될 것이라는 展望이 最近에 크게 바뀌고 있다. 런던에 本部를 두고 있는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最近研究에 따르면, 60個開途國의 79年 原油輸入量은 世界石油 貿易量

〈表-5〉 開途國 原油輸入 展望

(單位: 百萬噸)

	低 油 價 時 <sup>1)</sup>					高 油 價 時 <sup>2)</sup>				
	1979(실적)	底	1985 高	低	1990 高	低	1985 高	低	1990 高	
브라질	47.5	44.5	53.5	53.0	78.0	44.0	46.0	52.0	61.0	
홍콩	5.0	7.9	8.3	6.4	8.0	7.8	8.2	6.3	7.7	
인도	15.3	-0.1	13.7	-0.6	14.9	-0.1	13.6	-0.6	14.6	
한국	26.3	32.0	38.0	41.0	45.0	27.0	28.5	31.0	34.5	
필리핀	8.7	4.7	7.7	2.4	5.6	4.7	7.6	2.4	5.5	
대만	19.0	21.5	22.5	24.0	26.5	16.0	17.0	16.5	18.0	
태국	10.6	10.1	11.8	7.3	11.2	10.0	11.0	7.2	11.0	
터키	13.7	11.4	13.4	10.6	14.3	11.3	11.9	10.4	12.1	
알제틴	2.8	-7.5	-4.2	-13.4	-6.3	-7.5	-4.2	-13.4	-6.3	
칠레	3.9	3.2	4.4	3.3	4.9	3.2	4.4	3.2	4.8	
쿠바	9.3	10.8	11.5	12.8	13.3	10.7	11.4	12.5	13.1	
모로코	3.1	3.8	4.0	2.2	3.1	3.8	4.0	2.2	3.0	
파키스탄	3.8	1.4	2.7	0.7	2.9	1.4	2.7	0.7	2.8	
小計	169.0	157.0	174.0	176.0	195.0	141.0	153.0	148.0	164.0	
기타	25.9	27.0	34.0	34.0	37.0	26.0	28.0	31.0	34.0	
計	194.9	184.0	204.0	210.0	232.0	167.0	181.0	179.0	198.0	

註: 1) 低油價時: 年平均 実績上昇率을 1979~85에 3.0%, 1985~1990에 2.0%가정

1) 高油價時: 年平均 実績上昇率을 1979~85에 8.2%, 1985~1990에 4.3%가정

資料: PIW, September 6, 1982

의 17.5%인 4 百万b/d 정도까지 急伸張하였다. 79-80년의 油價引上에 따른 世界的 景氣後退로 開途國의 石油輸入增加率は 크게 鈍化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輸入鈍化는 構造的이고 持續的인 變化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表-5〉에는 EIU에서 推定한 開途國의 石油輸入量이 予側되어 있다. 이에따르면, 石油價格이 85년에 35달러/배럴 정도로 維持된다면, 石油輸入이 4 百万B/D를 약간 下廻하는 水準을 나타낼 것이나, 油價가 51달러/배럴 정도까지 引上된다면 開途國의 總石油輸入量은 79년보다 10%정도 減少하게 될 것으로 予側하였다.

한가지 重要的 事實은 대부분의 開途國(非産油) 들은 外貨節約의 必要性 때문에, 그리고 國內에너지産業의 開發을 위해 가능한 한 石油의 輸入을 抑制하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國際高金利와 美貨의 強勢에 의한 自國貨表示 原油價上昇效果도 開途國의 石油消費를 鈍化시키고 있는 한 要因이다.

한편 石油輸入開途國들의 國産에너지生産量이 크게 增加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79년에 243 百万石油換算톤(약4.9 百万B/D)였던 開途國內에너지生産量이 90년에는 430~477 百万TOE로 倍增하며, 95년에는 520~650 百万TOE 까지 增加할 것으로 推計하고 있다. 이것은 原油價格과 깊은 關係가 있으나, 現在의 油價推移를 檢討해 볼 때, 적어도 85년까지는 油價의 높은 上昇은 期待되지 않고 있다. 開途國中 가장 石油輸入量이 많은 브라질, 韓國, 台灣의 需要行態에 따라 開途國全體의 輸入推移가 변하게 될 것으로 予相하고 있다.

### III. OPEC의 政策方向

#### 1. 基本政策

OPEC이 創設될 當時의 石油環境은 原油의 供給이 需要를 超過하여 油價가 계속 下落하였고, 이에 따라 價格과 連結되어 있는 利權料(royalty)도 減少하게 되었다. 이에 産油國들은 原油公示價格의 安定化, 課稅基準價格의 調整등을 위해 OPEC의 結成을 이룩하였다. 즉 이 當時 OPEC의 基本石油政策은 메이저들에 의한 原油價格의 一方의 下落을 防止하려는 價格카르텔의 強化에 있었다. 그러나 原

油價格의 引下防止에 成功한 OPEC은 70年代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消極的, 防禦的 카르텔에서 積極的, 攻擊的 카르텔로 變身하여, 原油價格의 引上, 産油利權에 대한 自國資本의 參與增加, 나아가서는 石油會社의 國有化措置 등 石油産業에 대한 強力한 支配權을 行使하게 되었다.

OPEC의 性格은 初期에는 價格카르텔의 性格이 짙었으나, 현재에는 生産카르텔의 性格도 同時에 갖고 있다. 그러나 價格政策과 産油政策의 遂行에 있어서는 OPEC會員國間의 基本的인 利害關係가 항상 一致하지 않는다는 데 OPEC의 苦惱는 있다. 카르텔의 維持를 위해서는 會員國間의 利害가 合致되어야 하나, OPEC會員國間의 利害關係는 政治的, 經濟的, 石油資源賦存狀態 등의 側面에서 서로 다르다. 현재 石油政策에서 強硬한 立場을 취하고 있는 産油國들은 石油埋藏量이 적어 脫石油産業化를 早期에 達成해야 하는 나라들로써, 短期間에 石油收入을 最大化하여 莫大한 投資財源을 調達해야 하는 나라들이다.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石油埋藏量이 豊富하여 長期間에 걸쳐 石油收入을 極大化시키는 것이 有利한 나라들은 油價政策에 있어서 穩健한 立場을 취해야 石油需要의 減少를 防止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部類의 産油國들은 基本資源政策方向이 다르다.

이러한 事實은 79년부터 表面化되기 시작하였다. 이란의 産油량이 急減, 石油의 供給이 不足하게 되자, 強硬派産油國들은 가능한 한 油價를 引上, 石油收入을 最大化하려 했고, 穩健派産油國들은 油價의 急激한 引上은 消費國들로 하여금 에너지 消費節約의 強化, 石油代替의 促進, 인플레이 등을 招來함으로써 長期的인 石油收入의 極大化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油價의 急騰을 反對하였다. 이러한 強·穩間의 利害對立은 油價의 多岐化를 招來하였고, 그 결과 OPEC카르텔의 崩壞危險에까지 直面하게 되었다. 供給不足이 계속되었다면 OPEC 카르텔의 存続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73年以後 시작된 石油消費節約 努力의 效果와 80年以後의 世界的 景氣沈滯로 需要가 供給을 밀둘게 되고 油價引下壓力이 加重되자 會員國들은 油價下落을 막기 위해 油價를 單一化하고 이 價格의 固守를 위해 産油量쿼터制까지 採択하였다.

분명한 事實은 油價下落을 막는다는 立場에서는

□ 特輯 / 國際石油情勢와 對應政策 □

과거와 마찬가지로 會員國間的 利害關係가 一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OPEC의 油價調節能力이 喪失됐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며, 앞으로도 油價引下壓力에는 共同으로 對處하려 할 것이다.

2. 石油政策의 方向

OPEC의 價格政策은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樣相을 띄게 될 것이다. 石油市場의 本流는 契約去來이다. 契約市場에서의 價格은 OPEC에 의해 決定된다. 즉 現物市場은 中間去來者의 市場이지만, 契約市場은 生産者가 直接參與하는 市場이다.

따라서 現物市場價格은 모두 中間去來者에 의해 吸收되지만 契約市場의 경우 그 영향은 生産者에게 바로 波及된다. 現物市場과 契約市場은 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現物市場價格과 契約市場間에 直接的인 關聯이 없게 된다.

需要가 충분할 때는 生産者카르텔價格의 維持는 어렵지 않다. OPEC이 그 동안 原油價格引上을 쉽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충분한 需要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동안 엄청난 價格引上에도 불구하고 增加하던 需要가 80년부터는 絶對需要量이 減少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2年間的 需要減少는 予想外로 컸다.

물론 需要의 減少는 一次石油波動時에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의 減少量은 미미했으며, 주로 景氣沈滯에 따른 一時的 現象이었다(〈表-6〉참조). 80年 한해 동안의 需要減少量은 一次波動後 2年間的 減少量과 같은 水準이었다.

또한 현재의 需要減少는 景氣後退에 의한 一時的 現象이라기 보다는 需要의 構造變化에 起因한다. 즉

에너지, 특히 石油의 消費節約과 石油代替의 效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69~73年 期間의 全世界에너지消費增加分中 78%는 石油였는데 비해, 73~80年 期間에는 그比重이 겨우 7%였다.

石油消費減少가 단순히 景氣沈滯때문인 아니라는 것은 74年과 80年을 直接比較해도 분명해 진다. 74년에는 世界主要國의 經濟成長率이 2~4% 정도 下落했고, 80년에는 2%정도 增加하였던 것이다. 지금도 經濟는 점차 풀리고 있으나, 石油需要는 오히려 減少하고 있다.

需要가 減少될 때 카르텔價格은 危機를 맞게 된다. 카르텔이 崩壞되느냐 안되느냐의 問題는 供給者中 需要減少의 負擔을 担当할 者가 있는가에 달려있다. 가장 理想的인 方法은 모든 供給者가 均等하게 負擔하는 것이겠으나, 카르텔 構成員間의 財力, 資金 需要등의 差異때문에 負擔의 均分은 實現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누군가 需要減少의 대부분을 負擔해야 한다.

石油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로 이러한 供給者이다. 需要減少分의 대부분을 사우디가 吸收하는 한 카르텔價格은 維持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年餘의 急激한 需資減少時에도 OPEC의 基準油價가 維持되었던 것은 바로 사우디의 生産調節 때문이다. 市場需要에 맞춰 生産한다는 것이 사우디의 基本產油政策이다.

이것은 사우디의 經濟의 利益에도 완전히 付合되는 政策인 것이다. 사우디는 앞으로 200年 以上을 供給할 수 있는 石油資源을 保有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石油政策이 코앞의 利益을 目標로 해서 樹立되지는 않는다.

사우디는 과도한 油價引上을 反對하여 왔다. 이것

(表-6) 世界石油消費推移

(단위: 百万톤)

		1973	1974	1975	1979	1980	1981
북미		901.7	867.4	849.0	958.1	881.7	824.8
중남미		168.3	174.7	176.0	214.2	222.8	227.8
서구		748.9	699.3	664.4	732.4	680.1	629.5
중동		62.2	67.1	66.8	75.4	82.0	84.7
기타		462.3	453.9	441.9	525.0	509.3	503.6
공산권		454.6	497.9	526.7	619.2	626.6	631.3
세계		2,798.0	2,760.3	2,724.8	3,125.3	3,001.5	2,901.7
자유세계		2,343.4	2,262.4	2,198.1	2,506.1	2,374.9	2,270.4

資料: Statistcal Review of World Energy 1981

은 과도 油價引上으로 未來의 石油市場이 縮少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價格引下에도 反對하고 있다. 이것은 油價引下가 未來價格을 보다 不規則적이고 과도하게 引上시킬 수 있는 所地를 提供할 수 있다는 判斷때문이다.

**油價安定勢 지속예상**

사우디의 이러한 政策이 OPEC內的 強硬國 利益과는 背馳되는 점도 있으나, 현재와 같은 市場條件下에서는 그들에게도 이것이 最善策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OPEC 油價에 대한 上昇壓力은 需要에 의해 抑制되고 있고, 引下壓力은 사우디의 減産에 의해 抑制되므로서 現油價는 當분간 持續될 것으로 予想되고 있다.

OPEC의 産油·販賣政策에 있어서는, 사우디는 需要에 맞춰 生産한다는 立場인 반면 대부분의 會員國들은 財政所要資金에 맞추어 生産한다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82年 OPEC 會員國들의 財政資金 收支均衡을 이루기 위한 必要産油量과 實際生産 予想量을 보면, 13個會員國中 9個國이 財政赤字를 記

〈表-7〉 1982年 OPEC의 原油生産必要量 (단위: 千b/d)

区 別	必要量	現生産	予想量
<b>Discretionary Producers</b>			
사 우 디	6,410	7,900	7,550
리 비 아	1,070	870	1,310
쿠 웨 이 트	900	850	1,310
U A E	810	1,400	1,120
카 타 르	60	360	210
小 計	9,250	11,380	11,500
<b>Non-Discretionary Producers</b>			
이 란	3,610	950	1,600
이 라 크	2,110	950	1,200
나 이 지 리 아	2,230	1,800	1,500
알 제 리	1,200	700	1,100
가 봉	160	150	100
베 네 수 엘 라	2,400	2,100	2,100
에 콰 도 르	220	200	210
인 도 네 시 아	1,500	1,600	1,650
小 計	13,530	8,450	9,550
總 計	22,680	19,830	21,050

録하는 것으로 予測되고 있다 ((表-7)참조). 이것은 産油國들의 生産增加에 의한 供給過剩을 誘發하거나 油價引下로 潜在需要를 顯在化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市場弱勢는 73年 以後 進行되어온 長期的인 需要의 構造變化라는데 問題가 있다.

**下流部門의 進出**

OPEC의 石油政策에서 最近의 特徵은 精製·販賣·輸送의 下流部門에의 進出이다. 지금까지는 産油國들이 技術不足, 販賣의 메이저依存등으로 下流部門進出은 自國需要를 위한 精油工場建設이 高작이었다. 그러나 原油의 直接販賣는 雇傭, 附加價值 技術蓄積 등에 效果가 적고, 메이저依存에서 脫皮하려는 努力에 따라 下流部門進出을 적극적으로 推進하고 있다.

主要産油國의 石油需給展望에 따르면, 精製能力은 80年の 770萬b/d에서 90년에는 1,040萬 b/d로 增加되며, 製品의 輸出도 85년에는 260~290萬b/d에 달할 것으로 予測되고 있다. 그러나 90年の 製品輸出量은 크게 減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精製施設計劃을 86년까지 反映한 결과이기 때문에 信賴性이 없다((表-8)참조).

앞으로 OPEC는 原油輸出 爲主의 販賣政策에서 原油·製品混合輸出로 轉換될 것이다. 현재 原油去來方式이 메이저 中心에서 消費國政府 또는 消費國의 民間企業과의 直去來形態로 變化하고 있다. 즉 OPEC의 去來先이 多岐化되고 去來量도 小量化되고 있다. 이것은 供給카르텔의 市場支配力을 相對的으로 強化시키게 된다. 原油市場의 이러한 變化는 産油國들로 하여금 製品販賣에서도 有利한 位値를 提供할 것이다.

**消費國과 協調關係 유지예상**

한편 消費國과 OPEC과의 關係는 점차 協調的인

〈表-8〉 主要産油國 石油製品需給展望 (단위: 百萬b/d)

	1980	1985	1990
石油製品需要	3.3	5.1	7.1
精製能力	7.7	9.9	10.4
製品生産量	5.98	7.97	8.41
輸出可能量	...	2.6~2.9	1.0~1.6

□ 特輯 / 國際石油情勢와 対応政策 □

關係로 發展할 것이다. 앞으로는 OPEC도 1, 2次石油波動時와 같은 一方의 措置는 世界的인 景氣後退를 招來할 것이며, 이것은 消費國뿐만 아니라 OPEC의 利益에도 나쁜 結果를 가져온다는 것을 認識하고 있다.

OPEC產油國들은 모두 開發途上國으로서 自國의 産業發展을 위해 先進消費國의 技術과 資本財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會員國들은 石油收入中 많은 部分을 先進國의 資本·金融市場에 投資하고 있다. 따라서 產油國의 一方의 措置에 의한 先進國景氣의 沈滯는 石油需要의 減少뿐만 아니라 投資資本에 대한 收益率減少와 技術과 資本財導入을 위한 所要資金의 增加를 招來하므로써 產油國의 經濟發展도 沈滯되게 된다.

한편 消費國側에서도 OPEC의 一方의 措置에 対応하기 위해, 原油의 共同購入, 備蓄의 增強 및 備蓄原油의 危機時 配分, 代替에너지開發에 대한 共同投資 등 약간의 經濟的 損失을 甘受 하면서라도 모든 努力을 集中하게 될 것이다.

이미 先進國에서는 이러한 事態에 對備하기 위해 IEA를 創設하고, 여러가지 對備策을 講究中에 있다. 問題는 消費國들이 產油國의 石油政策에 대하여 얼마만큼 강력하게 対応할 수 있는나와 政治的으로 不安定하고 低開發狀態에 있는 OPEC 國家들이 先進國과 얼마만큼 밀접한 關係를 갖게 될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先進國의 경우 供給이 不安定할때 個別的 供給確保努力이 오히려 OPEC의 立場을 強化시켜 주었다는 것을 經驗하였고, 集團的 協商을 展開할 수 있는 機構가 設立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努力한다면 IEA 購買者카르텔로서의 役割도 할 수 있을 것이다.

OPEC의 경우는 經濟發展過程에 있기 때문에 先進國에 대한 依存度가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욱 密着될 가능성이 높다. 82年 3月現在 OPEC產油國의 海外資產을 보면 <表-9>에서와 같이, 사우디가 1,600~1,8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쿠웨이트가 76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OPEC全體로는 약 4,0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사우디의 경우 海外資產으로 부터의 收入만도 年間 130억달러정도다. 따라서 앞으로 OPEC는 先進

消費國과 協助體制를 維持하는 것이 自己들의 利益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石油政策도 이러한 方向으로 推進해 갈 것이다.

<表-9> OPEC의 Foreign Assets 推定額

(단위 : 억 달러)

國 別	foreign assets	國 別	foreign assets
리 비 아	334	나이지리아	45
쿠 웨 이 트	762	알 제 리	38
U A E	386	가 봉	7
카 타 르	161	베네수엘라	77
이 란	30	에콰도르	7
이 라 크	318	인도네시아	100
사 우 디	1,600~1,800	합 계	3,865~4,065

### III. 結 論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앞으로의 OPEC石油政策의 方向은 다음의 세가지로 要約될 수 있다.

첫째, OPEC의 價格카르텔로서의 役割은 계속될 것이며, 長期的으로도 그 重要性은 弱化되지 않을 것이다. 사우디가 카르텔의 危檢負擔者로서의 役割을 遂行하는 한 카르텔은 維持될 것이다. 石油價格이 安定되어 世界經濟가 回復되면 石油需要도 增加될 것이며, 그 增加분은 OPEC에 의해 供給될 것이다. 200年以上을 現水準에서 生産할 수 있는 石油資源을 가진 사우디가 價格引下를 反對하고 있고 安定的인 長期油價戰略을 追求하고 있기 때문에 OPEC의 油價政策은 安定化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OPEC의 下流部門進出의 本格化가 예상된다. 石油産業의 메이저依存에서 脫皮하려는 努力과 OPEC產油國들의 産業化에 따른 技術의 發達, 그리고 去來形態의 變化에 따른 販賣組織의 擴充 등으로 下流部門에의 進出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附加價值增大나 雇傭增大의 必要性 때문에 下流部門의 進出이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 OPEC과 消費國間의 協助體制確立이다. 지금까지 취해온 OPEC의 政策은 產油國에 보다 많은 利益을 준 것이 사실이나, OPEC과 先進國間의 經濟關係가 密着되어 가고 있고, 消費國들의 對抗能力이 어느정도 確立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相互協力關係 維持가 서로 利益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과도한 石油政策은 止揚될 것으로 생각된다. \*